

“평생 시를 쓰며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

CULTURE

2025년 4월 3일 목요일

“평생 시(詩)를 쓰며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독자들에게 보인다는 의미보다는 혼자 자족하는 의미가 먼저였죠. 한 500부 정도 찍어서 주변의 지인들이나 일상 속에서 덕분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한 것이 출간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담양 출생으로 올해 등단 40주년에 돌입한 고재중 시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지역 대표 시인 중 한명이다.

그가 문학들에서 시선집 ‘혼자 넘는 시간’을 펴냈다. 시제에서 요즘 그가 느끼는 농밀한 고독의 행간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는 출간을 밝히는 소회에서 자족의 의미를 들려줬지만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시선집은 그가 그동안 발간한 10권의 시집에 실린 650편 중 150편을 엄선해 묶은 것이다. 대충 묶었다기보다 엄선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고재중 시문학’을 접해온 사람들로부터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기울였다.

평론가들이 추천한 작품에서부터 ‘상처의 향기’(중학교) 및 ‘첫사랑’과 ‘새한도’(고등학교) 등 교과서 수록작이나 각종 시험문제로 다뤄진 시편, 언

등단 40주년 맞은 고재중 시인

시선집 ‘혼자 넘는 시간’ 출간

교과서 수록작 등 150편 수록

연말에 11번째 시집 펴낼 예정

론에서 다룬 시편 등에 이르기까지 이번 시선집 한 권에 오롯하게 묶여낸 것이다. 그가 창작해온 시편 중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손색이 없다.

특히 이번 시선집에는 시인이 그동안 발간한 10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신동엽문학상과 소월시문학상, 조태일문학상 등 우수한 문학상을 두루 수상했는데 그만큼 시의 족적이 깊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번 시선집은 면면한 강물을 이루고 있는 그의 시 세계를 만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시선집 2부에 실린 시 ‘첫사랑’이나 4부에 수록된 ‘날랜 사랑’은 그의 시문학 중 사랑을 주제로 한 대표작들로 대중들에 널리 회자되는 작품들이다.



시인은 ‘첫사랑’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바람 한 자락 불면 휘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햇살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이랴//봄이든 가지는 그 한번 텐 자리에/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고 노래한다.

또 시 ‘날랜 사랑’에서 ‘얼음 풀린 냇가/세찬 여울물 차고 오르네/은파리떼 보이랴/산란기 맞아/얼마나 좋으면/흔인색으로 몸단장까지 하고서/

좀더 맑고 푸른 상류로/발뼉뼉 뱉 뒤집어 차고 오르네/저 날선한 은백의 유탄에/봄햇살 튀는구나//오호, 흐린 세월의 누 헤쳐/깨끗한 사랑 하나 닦아 세울/날랜 연인이 연인들이’라고 읊는다.

이처럼 그의 시편들은 자연과의 그윽한 만남을 관조하면서 생명과 살아있음에 대한 찬가가 두드러지고, 아울러 생태문제의 등양적 정신의 세계 및 우주적 사유, 존재론적 사유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시적 스펙트럼을 넓혀오는 데 주력했다.

그는 시선집 출간 이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많은 수려한 시를 발표했으면서 여전히 대표작을 만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가 마음에 드는 대표시를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든 대표시로 거론할 만한 시는 없다고 봅니다. 문학인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중요시 한편을 쓰는 거죠.”

고 시인의 시에 대해 신철규 시인은 “이번 시선집은 시간을 잊게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넓어지는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를 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것은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다. 그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은 강, 새, 나무, 풀, 풀벌레, 고양이, 나비와 같은 흔한 자연물의 생동이다. 그것은 단순

한 눈부심과 고요한 찬란함으로 그윽하게 빛난다”고 했으며, 최진석 시인은 “고독한 길녘의 시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산책자가 산책을 마치지 않았고, 시인이 작품을 마칠표를 찍지 않은 까닭이다. 또 다른 길을 열어가느라, 한 시의 노래를 결코 그칠 수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동료문인들이 주축이 된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도해 발간하고 있는 릴레이 탄핵 파면 촉구 릴레이 시위 중 4월 현재의 탄핵선고기일을 확정된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다.

그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들 눈을 뜨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게 너무 황당했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처음에는 장난이고 농담하는 줄 알았다. 대명 천지에 비상계엄이냐니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묻자 다음 시집 출간과 함께 ‘소설 공부하기’라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연말에 11번째 시집을 펴내고 싶습니다. 또 시를 써왔지만 제가 보기에 시로 무언가를 이룰까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소설을 손대지 못했죠. 앞으로 여력이 되면 소설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삶과 예술의 근원적 메시지 ‘빛과 안식’ 전파

한희원 기획전...내달 25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삶과 예술의 근원적 메시지를 담은 한희원 작가의 기획전이 지난 1일 개막, 오는 5월 25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빛과 안식’이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작가의 깊이 있는 예술 세계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2023년 이후 한희원 작가가 새롭게 전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그의 예술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탄생과 사랑, 생의 시간과 안식을 아우르는 삶의 근원적 질문을 다루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생의 연작’과 함께 작가의 작품 세계에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추상 작품과 빛을 주제로 한 작품에 대한 탐구가 두드러진다.

한희원 작가는 1955년 광주 출생으로 1997년부터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초기 작품에서는 냉혹한 사회적 현실과 소외된 이들의 삶을 묘사하며 인간의 고통과 현실을 담아냈다. 이후 도시와 농촌의 풍경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갔다. 2020년 이후 작가의 대표작품으로 평가받는 ‘생의



‘생명의 노래’

연작’에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기존의 목격한 색채에서 벗어나 빛과 자연을 소재로 한 점차 밝고 따뜻한 색조를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런 변화는 오랜 시간 삶과 현실을 고민해 온 작가가 마침내 도달한 평온과 위로의 순간을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단순히 작가 개인의 작품 변화를 조명하는 것을 넘어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혼돈 속에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예술이 전하는 위로와 치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마티네 콘서트 ‘11시 음악산책’ 막 올린다

2025 GAC기획공연 첫 순서 ‘명작시리즈1-오만과 편견’

29일 광주예당 소극장...피아니스트 안인모 콘서트가이드

예술과 음악을 접목한 마티네 콘서트 ‘11시 음악산책’의 올해 첫 순서가 막을 올린다.

2025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명작시리즈1-오만과 편견’이 오는 2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명작’(名作)으로, 세기를 넘어 사랑받고 있는 문학과 그림, 음악을 결합한 인문학 콘서트를 8회 선보인다. 한권의 고전에 담겨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림, 음악과 함께 폭넓게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가 콘서트가이드로 시리즈를 이끈다. 풍부한 텍스트와 다채로운 편성으로 클래식, 월드뮤직, 상송, 재

즈 등 주제 맞춤형 플레어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명작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는 ‘오만과 편견’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인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오만과 편견’은 섬세한 필치로 삶의 미묘한 이면을 포착하고, 재치 넘치는 위트와 은은한 우미를 담아 당시의 사회상을 생생히 그려낸 작품이다. 19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사랑과 갈등, 결혼과 계급에 대한 풍자, 로맨스를 탐색한다.

아울러 18세기 영국의 대표적 화가이자 초상화, 풍경화의 대가인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앤드류 부부’ 초상과 함께 당시 시대상을 함께 들여다본다.



콘서트가이드 안인모

이날 소설 속 시대로 안내할 명곡은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아우르는 알테무지크서울이 들려준다. 헨델의 ‘오보에 협주곡 3번’, 존 다울랜드의 ‘홀라라 나의 눈물이어’, 프랑수아 쿠프랭의 ‘왕실의 합주곡집 중 제2번’, 비발디의 ‘차이론나’ 등 총 6곡의 고음악을 선사한다. 첼발로(하프시코드), 테오로보, 바로크 현악기 등 원형 악기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카운터테너 이희상, 바로크 바이올린 김은식, 바로크 오보에 신용현, 바로크 바이올린 김상하, 바로크 비올라 장희진, 바로크 첼로&비올라 다감 바 강효정, 첼발로 아렌트 흐로스펠트, 테오로보 윤원중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입장료는 2만원. 공연시간 80분.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김다경 기자 alsqld194@



알테무지크서울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